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

김 경 신(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정 란(전남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1. 개 요

본 연구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는 등의 폭력노출경험이 현재의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변인으로 의사소통효율성, 부부갈등, 합리적 대처, 아내학대 행동 등을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광주지역의 기혼남성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척도,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부부갈등척도,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0.0을 활용하여 Cronbach's α , 기초 통계, 상관분석, GLM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4. 결 과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체벌경험의 경우, 부부갈등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체벌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부갈등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목격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과 부부갈등에 차이를 보였는데, 폭력목격 경험의 많은 집단이 의사소통효율성은 낮은 반면, 부부갈등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체벌경험의 경우, 합리적 대처와 아내학대 행동 모두에 차이를 보였는데, 체벌경험이 없는 집단이 합리적 대처를 많이 하는 반면, 체벌경험이 많은 집단이 아내학대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목격의 경우 역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3)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체벌경험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목격의 경우는 모든 관련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폭력노출경험을 통해, 개인이 폭력을 일종의 행동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폭력적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폭력의 부정적 결과보다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관찰하였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긍정적 결과예측을 형성하게 되어, 성장한 후에 자신들도 부부간에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성이 있음을 시사한다.